

어계(漁溪) 조려(趙旅)의 은둔과 문화경관[†]

이행렬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The Eyogye Cho Lyeo and His Secluded Cultural Landscapes

Lee, Hang-Lyoul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ecluded cultural landscapes that were retained by Eyogye Cho Lyeo(漁溪 趙旅) as a recluse or a schola at the early time of Chosun dynasty through his poems, residential site and his successors' landscapes. The study sites were selected such as Wonbukjae(院北齋), Chamijeong(採薇亭), Gomaam(叩馬巖) and his graveyard.

In order to do that, Wonbukjae, Chamijeong, Gomaam and his cemetery were selected as studying sites. Also researching methods were used by grasping the landscape elements through reading ancient books such as 「Eyogyezip(漁溪集)」, field-researching, analyzing characters of his secluded landscapes and interpreting his poem's meaning.

This research found that: 1) After Danjong(端宗)'s dethronement, he returned to his home town and never come out to the world again. He wanted to keep fidelity to his king forever. 2) He was affected for his seclusion from many people who were Ryu Gyebun(柳桂芬), Bae Junghu(裴仲厚) as his classmates at Sunggyungwan(成均館). Also Won ho(元昊) and Kim Sisyub(金時習) as members of Sangyuksin(生六臣) affected him for sake of their seclusion. 3) The meaning of his seclusion expressed the notation of seclusion as a fisherman from his pen name as 'Yeogye'. Also this kind culture has very particular behavior such as concentration phenomenon of action, absolute eccentricity of seclusion, tourism of nature and deep knowledge of feng shui, strong persistence of seclusion and confucian practical attitude of filial behavior. 4) The secluded cultural landscape is divided to four regions. They have two types of landscape such as secluded cultural landscape of his lifetime and landscape transmission of his posterity and scholars. 5) The interpretation of his poems and their aesthetic analysis found two characters. His poems were expressed by landscape substance like plants, natural and man-made elements. Their theme was confucian, peaceful and faithful seclusion.

Key Words: Meaning Landscape, Wonbukjae, Chaemijeong, Gomaam, Interpretation

[†]: 이 논문은 2008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Hang-Lyoul Lee,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Cheonan 330-720, Korea, Tel.: +82-41-550-5299, E-mail: hylee@sm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계 조려 선생의 시작품과 그의 세거지 및 후대에 조성된 문화경관 요소들을 통하여 조선전기 은둔자로서, 선비로서 지켜 나갔던 은둔문화 경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지로는 그의 세거지였던 원북재, 채미정, 고마암, 묘소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어계집(漁溪集)」 등과 같은 관련 고문헌의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세거지에 나타난 경관요소의 파악, 그리고 조려의 은둔문화 경관 특징 분석, 시문에 나타난 의경미학의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1) 조려는 단종의 폐위와 함께 성균관에서 고향으로 은둔하여 세상과 결별하면서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2) 그의 출처관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는 성균관 동학이었던 류계분, 배중후 등과 생육신으로 교분을 나누었던 원호, 김시습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과 은둔관을 같이 했다. 3) 조려의 은둔이 갖는 의미는 호 ‘어계’에서 처럼 어부로서의 은둔관을 표명한다. 이러한 은둔문화는 독특한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는데, 행동의 집중화 현상, 절대 은둔의 기행, 산천유람과 풍수지리학의 조예, 은둔의 고집스런 지속성, 실천효행의 유가적 자세 등이 있다. 4) 은둔문화의 경관영역을 네 곳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본 바, 조려 당대의 은둔문화 경관과 후손과 사림들에 의해 전승되어진 경관전승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시문에 나타난 의경미학을 분석한 결과, 경물로는 식물, 자연요소와 인공요소 등이 있었으며, 표현되어진 주제의식으로는 ‘유가적 은둔’, ‘아취있는 은둔’, ‘충절의 은둔’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의경, 원북재, 채미정, 고마암, 해석

1. 서론

가치관의 혼란과 도의의 추락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여러 방향에서 모색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로 전통적 가치관의 재정립을 들 수 있다. 전통적 가치관의 재정립은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언뜻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제의 전통이라는 토대 위에서 오늘의 현실이 존재하므로 전통과 현대는 같은 맥락을 갖게 된다. 조선 전기의 문신 어계 조려(1420~1489)는 생육신의 한 분으로서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 함안으로 낙향하여 은둔하면서 교육에 힘써 나아갔던 선비였다. 그는 고향을 지키면서 단종에 대한 충절의 마음을 시로서 때로는 낚시와 같은 은둔생활을 통하여 표출하고 있다. 그의 충절은 백이와 숙제의 전설과 함께 서산서원, 채미정, 고마암 등의 형태로 후대에 전승되어졌으며, 유학자로서, 은둔자로서의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 조선시대 사상 흐름의 주류로 견지되어온 사림문화가 그 중심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림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은둔(隱遁) 또는 은일(隱逸)의 개념을 들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어계 조려의 은둔관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둔에 관한 연구는 국문학, 한문학, 건축학, 조경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먼저 변성규(1999)는 은일 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공자의 ‘일민(逸民)’ 개념으로 파악한 바가 있다. 특히 용어에 있어 은자(隱者) 또는 은일과 유사한 단

어로 ‘유인(幽人), 육침(陸沈), 일민, 은둔, 피은(避隱), 귀은(歸隱), 은(隱), 둔(遯), 둔(遁), 처사(處士)’ 등을 조사한 바가 있다. 김용현(2005)은 자연에 은거한 선비를 은사라고 하며, 자연에 은거해 있더라도 선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의 사상적 배경인 성리학의 ‘왕도정치’와 관련되며, 선비의 은둔관의 핵심에 있다고 하였다. 은둔 또는 은일 개념이 조경학 분야에서 연구된 것으로 양병이 등(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선비의 의식 속에는 노장의 신선 사상과 속세를 떠나 선계에서 정주하려는 은둔성향이 있으며, 그들의 자연관은 성리학, 도교, 풍수지리학과 음양오행 등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어졌다고 보았다. 선비가 선택하는 입지처에 대하여는 정영철(2007)의 연구가 있다. 즉, 은둔처의 형태로는 계거(溪居), 강거(江居), 해거(海居), 산거(山居) 등 거처의 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거와 계거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혁중·최기수(2009)는 이상적인 은둔처로 ‘동천(洞天)’을 제시하였다. 심경호(2009), 김수진·김태수·심우경(2007)은 박세당(1629~1703)에 관하여, 이경수(2007)는 김창흡(1653~1722)을 예로 하여 구체적인 은둔 인물에 대하여 연구를 한 바가 있다. 은둔의 구체적인 실천자에 대한 연구는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인물로 집중되고 있으며, 반대로 조선 초기에 형성된 은둔문화에 대하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인물로 은둔한 선비는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절의를 위해 은둔한 선비로는 어계를 들 수가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를 전개함으로써 조선 초기의 절의를 중심으로 한 은둔문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어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개인에 관한 연구와 생육신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두환(1989)은 어계의 은둔에 대하여 시대적인 배경으로 세조의 왕위찬탈 과정의 전후에 형성되어졌던 사림파의 등장과 훈구세력의 갈등구조로 풀이하였다. 이신성(1999)은 어계의 사실 기록과 시문, 유적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구일등고' 시, 원호와의 관련 및 어계 관련 유적지에 대하여도 자료를 정리한 바가 있다. 김성연(2000)은 어계의 시작품을 은둔의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정치 현실의 좌절과 관련지어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그의 시작품을 크게 성균관을 떠나오기 전과 떠난 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일등고' 시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였다. 한편, 어계와 관련된 전설은 기록과 구비로 전승되는 양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신성(2000)이 '호배도강전설'의 의미를 연구한 바가 있다. 어계의 주변 인물에 대한 연구로 생육신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시습에 관한 진상원(1993)의 연구, 원호에 관한 남상호(2001)의 연구 등에서 어계와의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어계와 같은 동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어계의 세거지였던 원북재 앞을 흐르는 냇가에 있는 '석정'에 관한 시문을 남긴 조은한몽삼에 대한 연구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는 김익재(2005)가 연구하였는데, 그는 한몽삼의 은둔을 유가적 은둔으로 지칭하면서 그의 출처관을 지적한 바가 있다. 어계의 은둔을 말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학작품과 묘갈명 그리고 세거지와 활동공간, 후대에 전승된 문화경관 요소들을 파악하여 조선 전기 은둔자로서, 선비로서 지켜나갔던 어계 조려 선생의 은둔 문화경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면면히 이어져 온 사림의 은둔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전통 문화경관의 한 특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일생에 영향을 주었던 성리학과의 교우관계, 은둔문화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상 특징과 그와 결부된 문화경관적인 특징, 그리고 시문에 나타난 의경요소를 세부 연구과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선 전기 사림의 은둔문화 경관의 한 부분을 밝힐 수가 있었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일대에 있는 어계 조려 선생이 조성한 원북재와 석정 그리고 후손에 의해 조성된 서산서원, 채미정, 고마암과 묘소 등을 포함하며, 그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2.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게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어계선생집(漁溪先生集)」, 「어계선생속집(漁溪先生續集)」과 같은 고문헌의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세거지에 나타난 경관요소의 파악, 그리고 어계의 은둔문화 경관 특징 분석, 시문에 나타난 의경미학의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경관요소의 파악을 위해서는 어계의 당대 세거지였던 원북재와 신후지(身後地) 그리고 후대에 그의 후손과 유림에 의해 건립되어졌던 채미정, 고마암 등 당대에 존재했던 장소와 건물, 그리고 후대에 조성되어졌던 장소와 건물 등을 중심으로 경관영역을 설정하고, 물리적인 장소성에 따른 경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과 의미를 살폈다.

은둔문화 경관의 특징은 크게 조려의 일생에 대한 조사, 조선 전기 사림의 영향력, 은둔문화의 의미, 은둔문화의 양식 등에 대하여 그의 문집 등 고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려의 은둔문화를 표현한 시 작품에 대하여는 의경미학 분석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시 작품에 표현되어진 경물(景物)과 주제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의경미학을 파악하였다. 경물은 시 작품에 묘사되어진 풍경, 풍치, 경관 등의 요소를 말한다. 주제의 해석이란 이런 경물에 의해 환기되고, 상징되고, 유추되어지는 정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비덕미학'의 개념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어계 조려 선생의 삶

세종 2년(1420년)에서 성종 20년(1489년)까지 살았던 조선 초기 단종을 위하여 수절한 생육신의 한 사람인 어계 조려는 본관이 함안(咸安)이며, 자는 주옹(主翁), 호는 어계(漁溪),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고려 공조전서(工曹典書) 열(悅)의 손자이며, 증사복사정(贈司僕寺正) 안(安)의 아들이다. 그는 나면 서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지취가 숙성하여 두각을 나타내므로 많은 이들이 그를 원대한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그는 미사려구로 장식하는 사장(詞章) 공부를 도외시하고, 유학의 대의를 공부하는데 목적을 두어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단종 1년(1453년) 34세에 성균관 진사가 되었는데, 이때 형조판서 점필재 김종직이 사관으로 있을 때였다. 1455년 단종이 세조에게 선위하자 성균관에 있다가 과거를 단념하고, 함안으로 돌아와서 서산(西山) 아래에 살면서 두문불출하였으니, 이 서산을 후세 사람들이 백이산(伯夷山)이라고 불렀다. 그는 벼슬을 하지 않고, 다만 시냇가에서 낚시질로 여생을 보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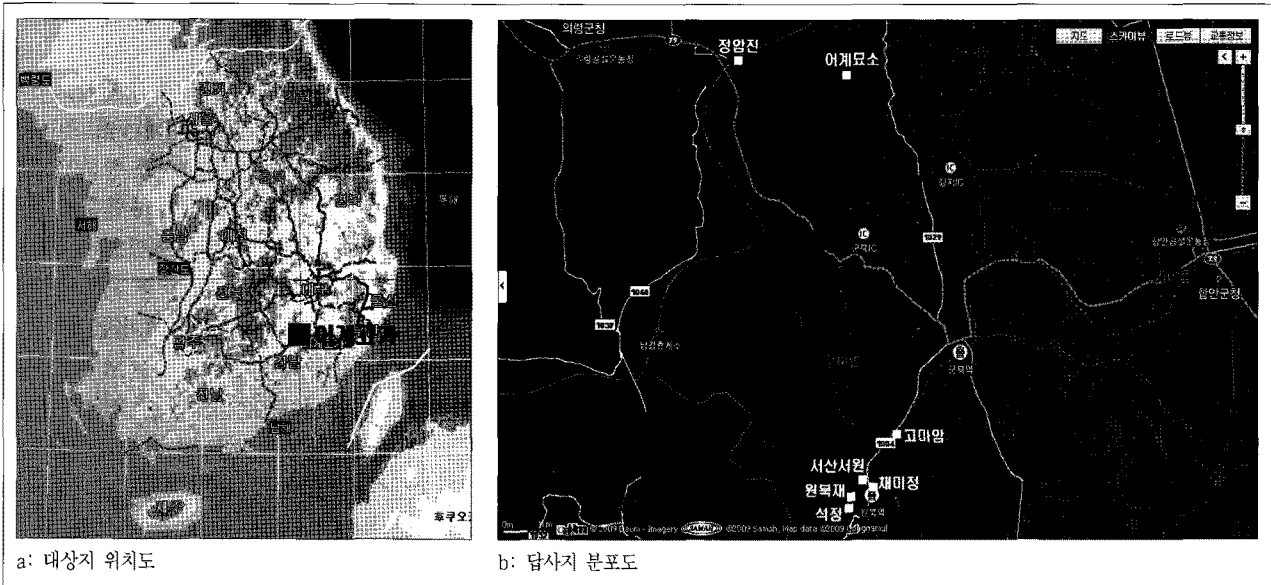


그림 1. 위치도

스스로 어계라 칭호하였다. 숙종 24년(1698년)에 노산군(魯山君)이 단종으로 추복(追復)되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그 후 1703년 경상도 유생 박억령(郭億齡) 등이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등 사육신의 예에 따라 생육신인 조여도 사당을 세워 제향하도록 건의하였던 바, 1706년에 그대로 시행되었다. 고향인 함안의 서산서원에는 그를 비롯하여 김시습(金時習), 이맹전(李孟專), 원호(元昊), 남효온(南孝溫), 성담수(成聃壽) 등이 제향되어 있다. 정조 5년(1781년)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어계선생집(漁溪先生集)」이 후손에 의해 편집되어 전한다(지두환, 1989).

2. 조려와 조선 전기 사림의 영향 관계

1) 조선 전기 사림의 출처관

조선 전기 사림의 특징을 출처관의 형성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출처관의 형성은 물론 성리학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그 연원은 고려말 야은(冶隱) 길재(吉再, 1353~1419)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고려말에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은 정치적 혼란기에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고려왕조에 충성을 지키려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 야은 길재 등과 같은 절의파와 신흥왕조 즉 조선왕조에 참여하여 개국을 하려는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 1342~1398),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등과 같은 개국공신파로 나뉘게 된다. 이들 가운데 절의파는 조선왕조가 되어서도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지키려는 두문동 72현(杜門洞七十二賢)¹⁾으로 남게되며, 후일 사림파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이 출처관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성리학으로, 도가 실행되거나 현명한 군주가 나타나면

세상에 나아가서(出) 자신의 정치적 포부와 학문을 널리 펼치며, 도가 사라지거나 패악군주가 등장하게 되면 물러나서(處) 은둔의 자세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출처관에 따라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은둔과 출세지간의 행동지침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어계의 출처관 형성

어계의 성리학 형성 배경은 당시의 사람과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관계를 모식도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조려의 학문 학습의 배경이 되는 스승은 다음과 같다. 즉, 단종 1년(1453년) 34세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 스승으로는 김중순(金從舜, 1405~1483), 손효문(孫孝文, 미상), 안중후(安重厚, 미상), 김예의(金禮義), 이종산(李種山), 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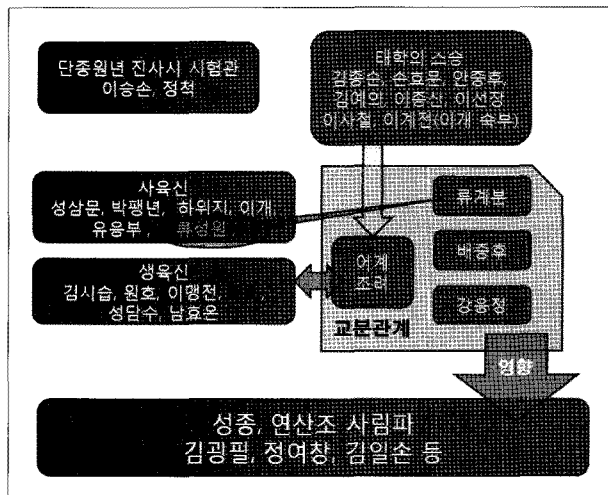


그림 2. 조려를 중심으로 본 사림파 형성도

장(李咸長), 이사철(李思哲), 이계전(李季甸, 1404~1459)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이계전은 나중에 사육신 중의 한 사람이었던 이개(李垲, 1417~1456)의 숙부가 되지만 결국 세조 편에 가담하여 공훈을 받게 됨으로써 단종에 대해 절의를 지킨 어계와는 뜻을 달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계의 출처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성균관 스승보다는 그곳에서 맺은 교분 관계에 더 있었다고 보겠다. 교분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그가 1453년 성균관사가 되면서 맺게 되는 동학(同學)으로서의 교분 관계와 계유정란 이후의 사육신 및 생육신과의 절의로 맺은 교분 관계이다. 이 중에서 먼저 동학으로서의 교분은 류계분(柳桂芬, 1397~?), 배중후(裴仲厚, 생몰 미상), 강응정(姜應貞, 생몰 미상) 등이 있다.

류계분과의 교분은 어계의 시 '차류정언계분시(次柳正言桂芬詩)²⁾'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는 친구간의 이별 뒤에 만남을 통하여 체득하게 되는 석별의 정을 '물은 흐르고 잎은 지니 세월 또한 바뀌어서, 기러기 울어대며 구름 밖에 날아가네'라고 노래하고 있다. 배중후와의 관계는 어계의 시 '진사 배중후의 시에 차운하여(次裴進士仲厚詩)³⁾'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학문에 대한 열정을 '맑은 물에 칼 씻는' 것에 비유하여 계속 정진할 것을 서로에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교분 관계는 나중에 단종이 폐위되는 불의가 나타날 때 함께 과거를 중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둔 생활하는 출처관으로 발전되는 것에서 둘 사이의 깊은 교감을 볼 수 있다. 강응정과도 관계 또한 어계의 시 '강생에게 부처(寄姜生)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신들을 '밤하늘의 별'로 비유하여 서로 헤어져서 못 만나는 위치에 있지만, 하루에도 아홉 번이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처럼 이들 또한 매우 깊은 교감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절의로 맺은 교분 중에는 사육신과 생육신을 들 수 있다. 사육신과의 교류는 앞에서 소개했던 류계분의 숙부가 류성원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 세조 2년(1456년) 성균관 사예 김질(金漬)의 고변에 의하여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주동이 되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는데, 류성원도 이 계획의 모의에 참여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성삼문, 박팽년 등은 차례로 잡혀와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는데, 이때 그는 성균관에 있다가 여러 유생들에게서 이 일의 내용을 듣고, 관대도 벗지 않고서 패도(佩刀)를 뽑아 자기의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이러한 출처관은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계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육신과의 관계는 그 자신이 생육신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생육신은 단종 4년(1456)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 즉, 김시습(金時

習), 원호(元昊), 이맹전(李孟專), 조려, 성담수(成聃壽), 남효온(南孝溫)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는 원호와 김시습을 들 수 있다.

원호는 단종 초기에 세조의 세력이 날로 커가는 것을 보고, 집현전 직제학을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원주 남송촌(南松村)에 들어가 세상과 등졌던 인물이다. 그는 조려, 이수형과 함께 세조 2년(1456년) 3월 16일(음력)에 원주 치악산에 올라가 돌을 하나 세워 그 곳에 세 사람의 이름을 세기고 '서로 손을 잡고 오르내리며 풀위에 솟발처럼 둘러앉아 서산의 옛 시를 화답하고 중류의 초사를 읊었다⁵⁾'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계와 밀접한 교류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의 시문이 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논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김시습과 어계와의 직접적인 교류는 세조 4년(1458년) 왕명에 따라 동학사 초혼각(招魂閣)을 건립하고, 노산군(단종)을 초혼한 후 이듬해 봄에 초혼각을 정비한 기록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시습의 시 '김매월당이 인편으로 보낸 여항시(金梅月堂送人之餘航詩)'에서 '잣나무는 두 개의 돌 사이에 나왔으나 세월이 오랏수록 더욱 더 푸르렀다. 엄하고 깨끗하게 절개를 지켰으며 늠름하고 매서움은 서리바람 이겼도다⁷⁾'라고 어계의 절개를 높이 칭송하고 있다. 이처럼 시를 보내고 받을 정도의 교류와 초혼각에서 서로 모여 단종을 위해 초혼제를 올리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둘 사이는 지음(知音)의 관계였다고 하겠다.

3. 장소를 통한 은둔 문화경관

1) 어계와 은둔문화의 의미

어계는 자기의 호를 어계(漁溪)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은둔관을 찾아 볼 수 있다. 어계란 호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함안향교의 벽상에 쓰다(題咸安鄉校壁上)'에서 '나는 본시 어계에서 은둔한 사람(我是漁溪隱遯人)'이라고 직설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어계'란 어부가 사는 산골짜기이면서 그 자체가 자신의 호로 사용했던 이름이기도 하다. 자신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제 3자가 어계의 은둔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타자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바른 평가이기 때문이다. 조평(趙平, 1569~1647)이 쓴 '어계묘갈명(漁溪墓碣銘)'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계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는 '그 뒤 곧바로 세상사를 사절하고, 과거 공부를 그만둔 채 두문불출하며 스스로 호를 어계처사⁸⁾라고 하였다. '은연 중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갯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는다는 뜻을 호에 부친 것⁹⁾'이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스스로 호를 '어계'라 하고, 그 뜻이 굴

원의 「초사(招辭)」 중 '어부사'에서 가져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려가 어계라는 호를 사용했던 것은 은둔자로서 취할 적합한 명칭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명칭을 통하여 자신의 은둔에 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심사는 은둔의 장소로 '어계'를 택하고 만들고, 그곳에서 은둔자가 지향할 목표점을 의경(意境)으로 표현하게 만든 동력이 되었다.

2) 은둔의 행동양식과 표현

은둔자가 은둔을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신의 정치이념에 정치 현실이 배반할 경우에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 수단, 둘째 기득권을 누리면서 만년의 안락을 위한 수단, 셋째 현실의 삶에 대한 염세적인 태도, 넷째 학문에 전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다. 조려의 경우에는 첫번째 이유 즉 단종의 폐위와 세조의 왕위찬탈에서 오는 '불사이군'의 정신에 의해서 은둔을 선택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은둔의 유형에 따라서 이들이 취하는 행동 양식 또한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것을 크게 집중화 경향, 기행, 비하, 산천유람, 고집, 논리의 보장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김성연, 2000), 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경관과의 관련성에서 볼 때 이러한 행동양식이 경관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하는 점이다. 따라서 그의 문집을 통하여 이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은둔행동의 집중화 현상에 대하여 그는 '언제나 한적한 방안에 조용히 있으면서 서책을 벗 삼아 성현의 언어와 취지에 마음을 잠고 마음속에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며 침식마저 잊어버렸다⁹⁾'에서 보듯이 평소에는 경서를 읽고 그 속에서 성현의 말과 글에 침잠하는 전형적인 몰두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은둔의 집중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관은 자연히 폐쇄적이고 구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그가 가거지로 택한 이곳은 함안군에서도 서쪽으로 편중된 곳이며, 비교적 중심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곳에 집을 짓고, 낚시로 일관하는 하루를 주로 '두꺼비 바위'에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둔의 집중화 현상이 빚어낸 경관이라 하겠다. 두꺼비는 집지킴이와 재물복을 상징한다고 할 때 은둔자의 상징으로 두꺼비를 비유하는 것은 집을 지킨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바위는 계류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원복재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둘째, 기행(奇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볼 때 어계의 기행은 중이 되어 세상을 방랑으로 일관했던 김시습, 가짜 맹인 행세를 했던 이맹전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올해년에 단종이 물러난 뒤로 과거를 단념하고 두문불출하며, '어계에 은둔하여 낚시로 평생을 마치고 세상에 이름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¹⁰⁾' 점에서 볼 때 이 또한 기행이라고 하겠다. 기행의 결과, 나타나는 경관으로는 자신의 호 '어계'

리는 명칭과 '두꺼비 바위'와 '고마암'을 들 수 있다. 낚시라는 행위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입장에서는 일탈의 행위이다. 자신의 호를 낚시하는 계곡을 노닌다는 뜻에서 '어계(漁溪)'라고 장소를 뜻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두꺼비 바위'와 '고마암' 바위터는 그가 무상으로 가서 낚시를 즐겼던 곳으로 언어와 장소에까지 그의 문화경관 요소가 남아 있음을 보게 된다.

셋째, 산천유람 활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계는 거의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둔자의 행동양식상 동일한 특징을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은 풍수설에 조예가 깊어 아름다운 수석이 있는 함안군 서쪽 원북동에 택지를 정하고¹¹⁾, 또는 '공이 몸소 정암강 가에 신후지(身後地)를 잡았으니¹²⁾, 처럼 풍수지리에 조예가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풍수지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자연 지리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엔 산천유람을 많이 다녀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은 '이참의의 의림사 운을 차운함(次李參議義林寺韻)'이라든지 '망선정에서 판상운을 차운함(望仙亭次板上韻)' 등에서 여항산에 소재한 의림사 또는 옥천에 소재한 망선정¹³⁾, 그리고 원주에 있는 원호와의 교류관계 등에서 그의 활동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넷째, 그는 일상생활에서 효성이 지극하여 아무리 가난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기호하는 것에 대하여는 늘 풍족하게 준비해 두어 그 아버이를 즐겁게 해드렸다는 점이다¹⁴⁾. 그의 빈한한 생활은 출사하지 않은 선비가 겪어야 할 당연한 고통이요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대한 효성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유학자로서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끼니를 잊지 못할 가난 속에서도 태연하게 도를 즐거워하면서 굳센 의기와 화평한 모습'의 자세를 보였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 여겨진다¹⁵⁾. 이러한 점은 은둔자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도(道)'를 추구하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적응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조려의 은둔 행동양식과 관련되는 경관은 원복재 그 자체를 들 수 있다. 원복재는 19세기 후반에 다시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2칸의 기와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계 당대에 존재했던 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그에게 집이란 산과도 같은 은둔처였다. 그의 후손 조평(趙平)이 쓴 '어계묘갈명(漁溪墓碣銘)'에 '선생이 은둔한 곳은 산이 아니라 집이었다(先生之隱 不於山而于家)'는 구절처럼 그에게 있어서 집은 산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은둔처로서의 의미였음을 볼 수 있다. 조려의 이러한 은둔 행동양식은 성리학의 의리명분론과 함께 중종 이후 등장하게 되는 사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지두환, 1989), 조선시대 은둔처사의 특징이 되고 있다.

4. 은둔 문화경관의 영역별 특징

어계의 삶은 비교적 단순한 양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앞

의 은둔 행동양식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게 되는 공간에 대한 파악을 경관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림 3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관의 영역은 경관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실체 즉 지형에 의해서 1차적으로 형성되며, 여기에 문화적인 요소가 덧씌워져 인식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조려의 삶이 존재했던 공간은 지금의 공간 실체와는 많이 달랐지만, 지형의 변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변화는 극히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실체로서 지형을 중심으로 하여 은둔문화가 발생되어졌던 공간을 구분짓고 그와 관련되는 경관의 영역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우선 어계의 생존지 거주공간이었던 '원북재(院北齋)', 그의 사후 건립되었던 '채미정(採薇亭)'과 후손에 의해 명명되어진 '고마암(叩馬巖)' 그리고 그가 생전에 점지했던 신후지로서의 '묘소'를 중심으로 하여 가시권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형에 의해 구획되어진 영역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장소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경관영역을 다음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들 경관영역에서 주된 경관요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북재(院北齋) 경관영역

이 경관영역은 원북재를 중심으로 하여 마을이 구성되어져 있는 곳이다. 경관의 형성은 오른쪽으로 백이산(伯夷山, 369.0

m)과 숙제봉(叔齊峰, 356.2m), 왼쪽으로는 방어산(503.9m)의 지맥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골짜기가 형성된 곳의 초입부에 있다. 원북재를 중심으로 하여 가시권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3의 a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오른쪽의 백이산과 숙제봉이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다. 백이산의 옛 이름은 쌍안산인데, 단종 복위후 숙종이 내린 '어계선조사제문(漁溪先祖賜祭文)' 중에 쌍안산을 백이산이라 칭하여 공의 절의가 옛적 백이와 같음을 찬양하였다는데서 연유한다.

원북재는 어계 선생이 성장하고 은거한 곳으로 원북마을의 입구에서 560m 정도 떨어져 위치하는데, 마을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개 동쪽부락의 경우 향렬 위계가 높은 집이 마을의 가장 안쪽 또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원북재도 이 마을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곳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계가 은둔을 위해 고향 함안으로 내려오면서 최초로 이 터를 점지하고 가거지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북마을은 폭 2m 정도의 좁은 개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지(之)자 모양으로 흐르고 있으며, 길과 개울이 마주 달리면서 마을과 논밭이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자연적인 경계가 되고 있다. 또한 마을의 향은 남향을 하고 있으며, 뒤쪽으로는 높이 156m의 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높이 118m의 낮은 산이 막아 서고 있어 자연스러운 배산임수의 형국을 이루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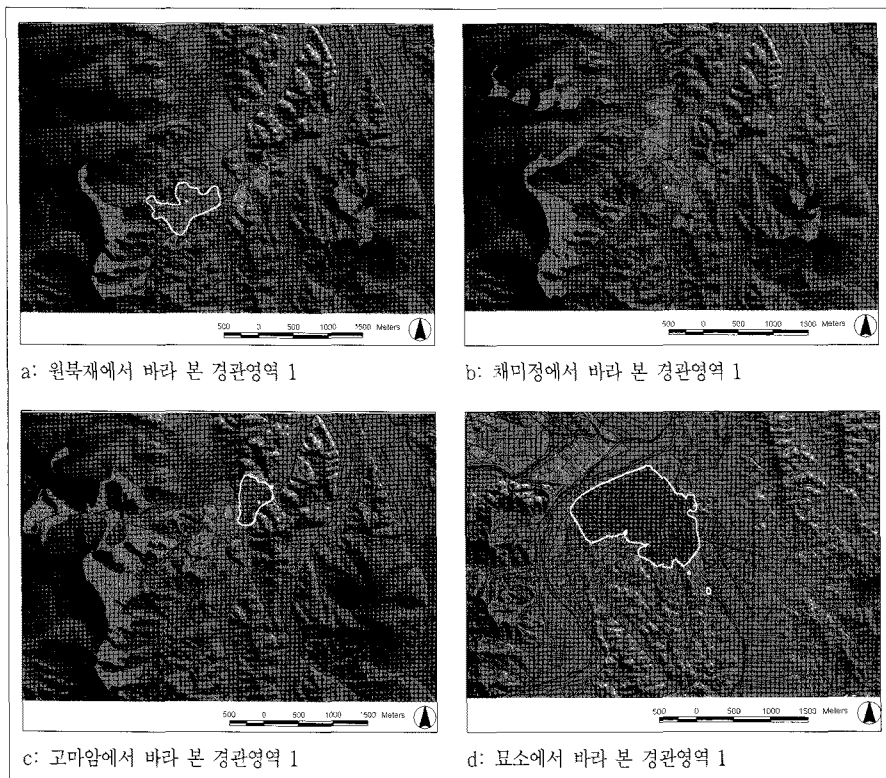


그림 3. 조려의 문화경관 영역구분

범례: ● 문화경관 위치, / 수계, □ 가시지역, ■ 비가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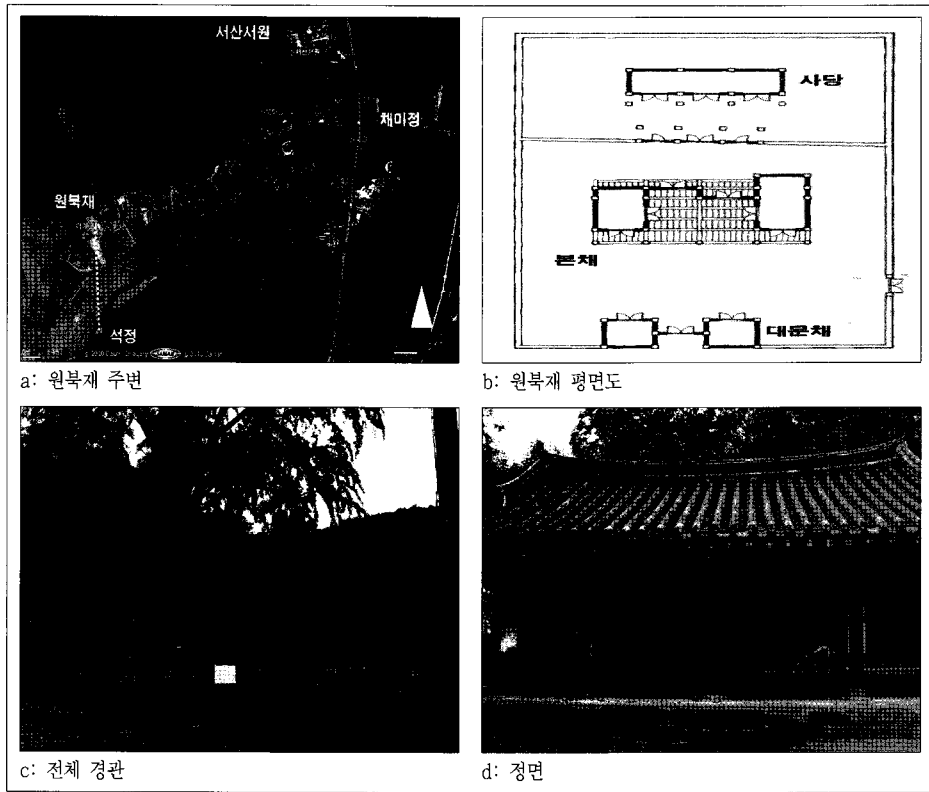


그림 4. 원복재 구역

자료: a: http://local.daum.net/map/index.jsp?tnil_bestservicemap, 필자 제작성
 b: 강영환, 1999: 311

어 가지로써 손색이 없는 곳이다. 다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개울을 따라 골짜기가 형성됨으로써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며, 여름 장마철에는 물이 넘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나, 지금까지 큰 홍수 없이 지내왔다고 한다. 이러한 형국에는 대개 부족한 터를 보완하기 위한 비보풍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전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다만 이곳 원복재에서 직선거리로 160m 떨어진 곳에 있는 석정 또는 '두꺼비 바위'가 그러한 비보풍수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근거가 없으므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이곳은 대문채, 원복재라고 부르는 재실과 조묘(祖廟)의 사당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대문채는 3칸으로 가운데 문을 높여 세운 솟을대문을 두었고, 양쪽은 방으로 만들었다. 재실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집이다. 일(一)자형 평면으로 부엌이 없이 가운데 2칸을 대청으로 하고, 양쪽은 툇마루를 둔 방을 1칸씩 만든 후 주변에는 담을 둘렀다. 살림집보다는 재실 성격을 띤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당은 3칸 일자형 평면에 지붕 옆면이 사람인(人)자 모양과 비슷한 맞배지붕집이다. 비교적 장식이 섞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물로 어계 선생과 부인에게 제를 올리는 곳이다(강영환, 1999). 건물 평면배치를 보면 일반적인 반가의 구성에서 안채가 생략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

이 지나오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 변형되어 왔기 때문에 안채가 없어지고 사랑채가 본채로서 재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현재의 건물은 상량문에 따르면 갑자(甲子) 9월 22일 상량한 것으로 나오는데, 19세기 건축으로 본다고 할 때 건립 연대 추정은 대략 1864년이 된다.

원복재 경관영역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경물은 고택에서 들판을 지나 개울을 건너면 길 옆에 있는 '석정(石亭)'이라고 하는 바위이다. 이 바위는 어계 선생이 생전에 낚시를 즐겨하던 곳이라고 전하며, 그 형상이 두꺼비 모양을 하고 있어 '두꺼비 바위'라고 전하기도 한다. 바위는 개울 건너편 산기슭에 위치하는데, 원복재와 마주 하고 있으며, 북향으로 앉아 있다. 바위의 크기는 장변이 6.95m, 단변이 4.63m에 높이는 최대 1.1m의 크기를 가진 타원형에 가까운 평면을 하고 있으며, 그 위에 장정 네 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크기다(그림 5의 b 참조). 바위의 형상은 좌측면에서 보면 마치 두꺼비가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두꺼비 바위'라는 연상이 쉽게 될 수 있다. 이 바위와 원복재를 연결해 보면 직선으로 160m 떨어져 있다(그림 5의 a 참조).

이렇게 원복재와 '두꺼비 바위'가 서로 조응하는 위치에 자리잡게 된 것은 어계가 원복재 터를 잡을 때 미리 이 곳을 염두에 두고 점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두꺼비가 원복재가 있는 마을을 바라보는 또는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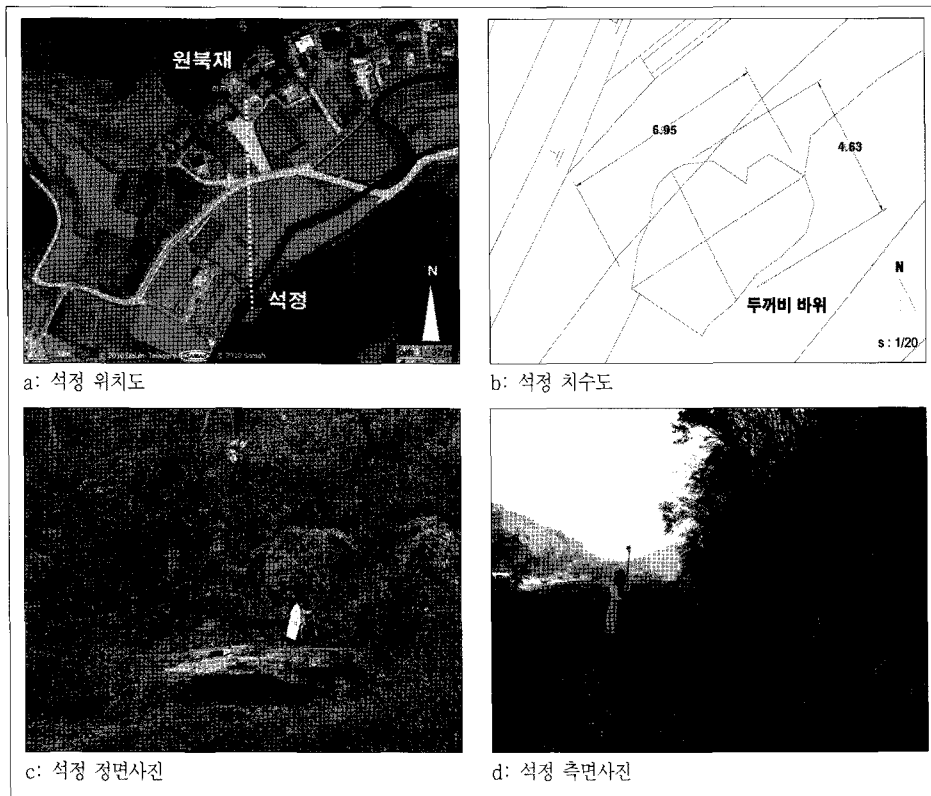


그림 5. 석정 구역

자료: a: http://local.daum.net/map/index.jsp?l_nil_bestservice=map, 필자 제작성

겨지도록 마을이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비보풍수의 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개울과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겨울의 찬바람이 주거지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 전통풍수에서는 이러한 허(虛)한 곳을 보완하기 위해 조형물 또는 마을숲 등을 세우는데, 원북마을의 경우에는 '두꺼비 바위'가 그러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꺼비를 비보풍수로 사용한 예를 보면 경북 안동에 독기를 뿜은 오송산(蜈蚣山)의 지내에 대응하여 맞은 편 목성산에 돌두꺼비를 배치하였다(최원석, 2000)는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북마을의 '두꺼비 바위'도 비보풍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관련된 문헌이나 전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다.

어계가 평소 소요와 낚시를 위해 자주 찾았다고 하는 이곳에 대한 의미를 두꺼비 상징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두꺼비가 갖는 상징성은 우리 민속문화에 있어서 '의몽하고 둔하면서도 슬기롭고 의리 있는 동물'로 형상화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혜로운 동물이며, 나라의 흥망 징조를 보이며, 장마가 나타날 징조로 여기며, 보은을 하는 동물이라고 하겠다(<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30444&ty=2>). 그렇기 때문에 단종에 대한 충절과 의리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땅에 은둔하게 된 어계의 입장에서 두꺼비에 대한 상징성이 직접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앞의 비보풍수에 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두꺼비 바위'에 대한 명명을 누가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계 사후 은둔에 대한 흥미와 함께 자연스럽게 명명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두꺼비 바위'를 '석정'이라고 부르는 데는 또 다른 연유가 있다. 이곳에는 '石亭'이라는 글자와 시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조은(釣隱) 한몽삼(韓夢參, 1589~1662)이 1645년 친형 한몽룡이 죽고, 이듬해 중형 한몽일 또한 세상을 떠나자 세속에 뜻을 잃고 이곳 원북 산수 좋은 곳으로 은둔하게 되면서 지은 시에서 연유한다. 조은집(釣隱集) 행장(行狀)에 따르면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파릉군(현재의 함안군) 서쪽에 바위가 있어 편편한 곳을 골라서 석정 두 글자를 석대에 새기고 정자로 삼았다'고 한다. 또한 바위 위에 '천석고황(泉石膏肱) 연하고질(煙霞痼疾)¹⁶⁾ 수석침류(漱石沈流)¹⁷⁾ 경운조월(耕雲釣月)¹⁸⁾'이라는 글자도 함께 새겼다¹⁹⁾. 글의 뜻을 보면 '천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고향과 같은 병이 되고, 저녁노을과 같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고질이 되니 돌로 양치하고 물을 배개 삼고 구름 받들 갈고 떠 있는 달을 낚는다'는 심정처럼 자연 속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심정은 은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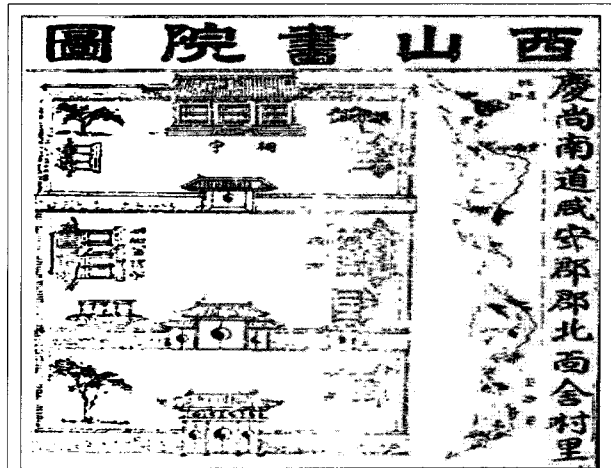
한 선비 즉 은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으며, 한몽삼은 어제의 삶 속에서 같은 모습을 발견하였기에 이러한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한몽삼의 문집에 직접 어계에 대해 쓴 글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자연 속의 은둔에 대하여 공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조은'이라는 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려는 '어계'라는 호를 사용하였으며, 한몽삼은 '조은'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물론 조선시대에 '낙시' 또는 '어부'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은둔하는 선비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서로 유사한 명칭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이미 은둔에 대한 동질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두꺼비 바위' 또는 '석정'은 어계와 조은에게 있어서 은둔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인 통로'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공간은 조은에 의한 어계의 문화경관이 전승되어진 전승경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은의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사료된다.

2) 서산서원(西山書院)과 채미정(採薇亭) 경관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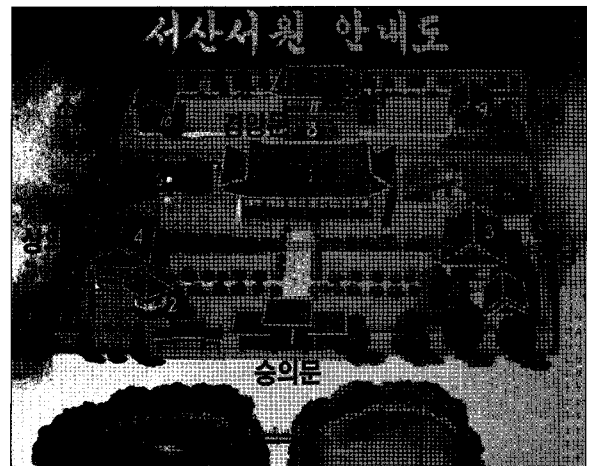
이 영역은 서산서원과 채미정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으로 어계 사후에 후손과 사림에서 생육신과 어계의 충절의 뜻을 기려서 세운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건물은 채미정이라 하겠다. 이 누정은 본래 서산서원에 속했던 것으로 숙종 29년(1703년)에 영남의 유림들이 모여 서산서원을 건립한 연후에 서원의 동쪽 담장 밖에 네모난 연못과 아름다운 암석이 있었던 곳에 지었다고 한다. 따라서 정자의 이름도 어계 선생의 '구일등고' 시에서 서산을 빚댄 것에 연유하여 채미정이라 이름하였다²⁰⁾. '채미'는 고비를 캔다는 뜻으로 중국 주(周)나라의 곡식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은둔하여 고비를 캐먹으며 은(殷)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켰던 백이·숙제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이 이름을 붙인 뜻도 후손들이 어계의 높은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여 붙인 것으로 언어로 본 문화경관이 여기에도 나타난다.

서산서원은 숙종 29년(1703년) 예조판서 조상우(趙相愚)와 숙종 30년(1704년)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의 상소에 따라 임금의 재가를 얻어 영남의 유생과 후손들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숙종 33년(1713년) 손경장(孫慶章) 등의 상소로 '서산서원'이란 사액 현판이 내려졌다. 현재의 건물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된 것을 1984년에 복원 완공된 것이다. 당시 복원할 준거를 찾지 못하여 비슷한 유형의 서원을 참고하여 복원하였다고 한다.

복원된 경내에는 양정당(養正堂, 동재로 현관의 숙소), 상의재(尙義齋, 서재로 유생의 숙소)를 비롯하여 외삼문, 내삼문, 강당으로 사용되는 숭의당(崇義堂), 내삼문 안에는 전사청, 소



a: 서산서원도



b: 현재의 서산서원 배치도

그림 6. 서산서원 구역

자료: a: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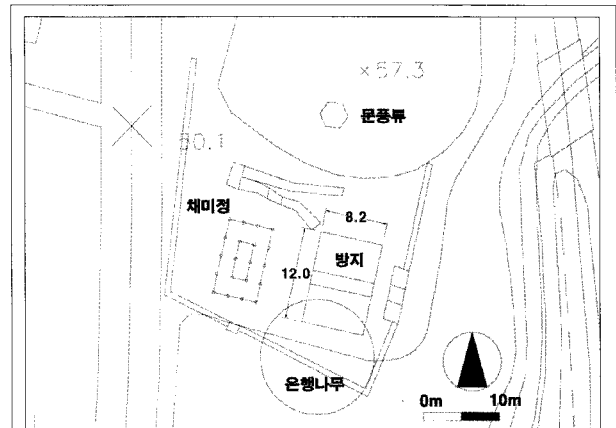
청각과 생육신의 위패를 모신 충의사(忠義祠)가 있다. 그림 6의 b는 현재의 서원배치도를 보여주는데, 전체 공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강당에 해당되는 숭의당이 정문을 들어서면 중심 위치에 있으며, 그 뒤로 내삼문을 거쳐서 충의사 사당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경내에는 조경을 하였는데, 향나무를 중심으로 일본식 정원 형식으로 조성되어져 있다. 전체 모습에서 볼 때 일반적인 서원의 조경양식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래의 형태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그 근거로 원호(元昊)의 「관란선생유고(觀瀾先生遺稿)」에 있는 '서산서원도(西山書院圖)'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원호 선생의 문집은 순조 13년(1813년)에 후손 원석조(元錫祚)가 엮었는데, '서산서원도'에 그려진 내용도 당시의 모습을 그렸거나 또는 전하는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원군 시절에 훼손되었다가 복원된 현재의 모습에 비해 보다 원형에 가까운 서원배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원형복원을 하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다.

도판에 따르면 정문은 누삼문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현재의 건물 형태와 상이하다. 이 문을 지나면 왼쪽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으며, 오른쪽에 세 칸 건물이 한 채 있다. 도판에는 글자가 있는데, 내용을 판독할 수 없다. 중문도 삼문인데, 이곳을 지나면 네 채의 건물이 좌우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 도판에서 왼쪽 중심 건물에는 '□서원강당'이, 오른쪽 중심 건물에는 '동재'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여진다. 이곳에는 수목을 식재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서원 내 식재는 간결하게 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본식 정원으로 조성된 것은 원형으로 복원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내삼문을 지나면 중심 위치에 사우(祠宇)가 있는데, 생육신을 모시는 사당이다. 역시 이곳에는 좌우로 각각 한 그루씩의 소나무가 있으며, 그 아래에 부속건물이 좌우로 각 한 채씩 있다. 이 공간은 현재에도 비교적 충실히 재현되어져 있다. 이 도판은 현재의 서원의 배치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산서원이 서원건축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도판을 준거로 당시의 서원 유형과 비교하여 원형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채미정은 정면 4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으로서, 정면 좌우측에 '백세', '청풍'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건물 정면에 방지형 연못이 있고, 북쪽 절벽 위를 청풍대(淸風臺)라 하는데, 모두 채미정을 지을 때 만든 곳이다. 청풍대 위에는 '문풍루(聞風樓)'란 육각정이 있는데, <문풍루기>에 따르면 1969년에 후손들이 조려의 백세풍고를 기리는 뜻에서 건립하였다고 한다. 채미정 경내에는 수고 20m에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현재 함안군 보호수(지정번호 12-11-3-3)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백이산과 숙제봉이 마주 보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채미정 경관영역의 중심 공간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가승에 따르면 조려 선생 생전에 이곳을 거쳐서 고마암 쪽으로 산책과 낚시를 즐겨 다니던 길이라고 하며, 청풍대 위에 올라서 '구일등고' 시를 읊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채미정 일대는 당시에는 중요한 경관 거점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미정에 걸린 현판인 '백세'와 '청풍'은 모두 백대(百代)에 부는 맑은 바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백세(百世)는 '오래 세월' 또는 '영원'을 뜻하고, 淸風(청풍)은 매섭도록 맑고 높은 군자의 절개나 덕을 비유한다. 따라서 '백세청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선비의 절개를 의미한다. 백세청풍에 해당하는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은 '채미'의 고사에 나오는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백이·숙제를 제사 지내는 해주의 청성묘(淸聖廟) 앞에는 '백세청풍이제지묘(百世淸風夷齊之廟)'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후 길재(吉再)의 충절을 기리는 사람들이 묘소 앞에는 "지주중류(砥株中流)"라고 각석하고, 살던



a: 채미정 배치도



b: 채미정 정면사진

그림 7. 채미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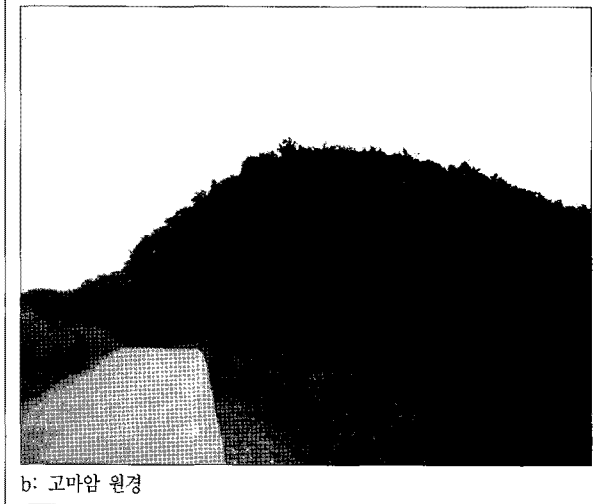
집에는 백세청풍이라고 각석하였다. '지주중류'는 중국 이제묘(夷齊廟)에 새겨진 성구이다. 지주(砥株)는 숫돌 모양의 돌기둥이고, 중류(中流)란 황하의 속을 의미한다. 지주가 황하의 격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솟아 있는 모양이 마치 난세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인물의 행동을 연상하게 한다(http://cafe.daum.net/mokpoczerypiano/)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곳 채미정은 백이·숙제를 흠모하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대의에 따라 이곳으로 은둔한 어계 선생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 되었으며, 후일 후손들에 의해 누정의 현판이 되고, 고마암의 각석으로 표현되어져 선생의 기개를 높이 전하려 하였던 전승경관이 된다.

3) 고마암(叩馬巖) 경관영역

이 영역은 어계 선생이 낚시하던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 군북면 하림리 입구에 있는 '고마암' 또는 '고바위'라고 하는 석벽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을 일러서 '어조대(漁釣臺)'라고 표하기도 한다(http://cafe.daum.net/cjn3400/). 고마암의 높이는 대략 7m 전후가 되며, 길이 또한 30m 전후가 되는 경물이



a: 고마암 항공사진



b: 고마암 원경

그림 8. 고마암 구역

자료: a: http://local.daum.net/map/index.jsp?__nil_bestservice=map, 필자 재작성

다. 여기에는 후손 조삼규(趙三圭, 1890~1950)가 채미정에 있는 '백세청풍(百世淸風)'의 글씨를 옮겨 새겼는데, 함께 '서산(西山)' 시도 지어 새겼다. 또한 그 옆에는 역시 후손 조시일(趙始一, 1755~1835)이 지은 '고암(叩巖)'이라는 시도 새겨져 있다. 모두 어계의 풍세지교를 백세토록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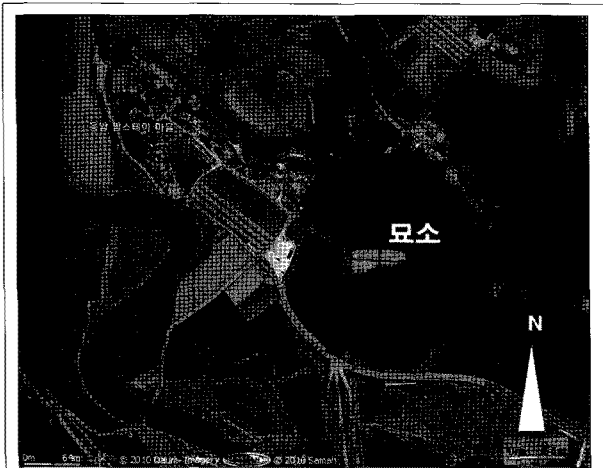
고마는 '백이숙제 고마이간(伯夷叔齊 叩馬以諫)'에서 따온 말로 주(周)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려고 할 때 백이와 숙제가 그 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신하가 왕을 무력으로 반역할 수 없다는 것을 간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백이와 숙제가 무왕을 간하였듯이 어계 또한 수양대군의 단종 폐위에 대한 만행을 저지하고픈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마암 명칭은 어계 선생의 뜻을 십분 잘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평소 '석정'에서 낚시를 하고, 채미정이 있던 언덕에 올라 '백이산'과 '숙제봉'을 바라보며 '구

일등고'를 읊다가 개울가를 따라서 여기 '고마암' 대에 와서 낚시를 하며 은둔의 시간을 소요하였던 어계의 일상을 이 공간에서 엿볼 수 있다. 호가 '어계'이요 은둔문화 경관의 키워드 또한 '낚시'라고 한다면 이곳 '고마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공간은 어계 선생 생전의 경관으로서의 의미에 중첩되어져 후손들에 의해서 석각과 작시(作詩)를 통하여 은둔문화의 '경관 전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곳이라 하겠다. 이처럼 '경관 전승'은 비록 당대에는 경관 형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후대에 끼친 영향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어진 경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 '고마암' 또한 어계의 은둔문화 경관이 후대에까지 경관이 전승되어져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진 경관이라고 하겠다.

4) 묘소 경관영역

이곳은 어계 선생의 묘소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영역이다. 어계는 풍수지리에도 능해서 성문준(成文濬)이 찬한 전기에 보면 '공은 풍수에 능하다(公善風水)'라는 구절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전이 여러 있는데, 크게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택풍수와 관련된 것으로는 우선 그가 단종의 폐위와 함께 함안으로 귀향하면서 복거할 자리를 직접 잡았다는 기록이다(위 전기에 같이 수록됨). 함안군 군북면 원북동이 그가 지정한 곳이었는데, 이곳은 원래 수석의 승계가 아름다우나 처음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 수목이 하늘에 치솟고, 거처된 곳이었다. 그러나 손수 수목을 베고 풀을 깎아 집을 짓고 복거터로 삼았다. 그 후 본 지손들이 번성하여 판면이 끊이지 않고, 연장접옥(連牆接屋)하여 한 마을을 만들고, 또 세거 번창하여 큰 마을을 이루며 자손들이 세거하였다. 세거지와 관련된 또 다른 구전으로는 '마을에 철마가 들어오면 자손이 끊어지니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물론 철마를 당시에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대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음택풍수와 관련된 것으로 어계의 묘소를 들 수 있는데, 함안군 범수면 강주리 산53번지(응암산) 갑좌에 있다. 이곳은 정암강 동쪽 주산인 삼봉산(三峰山)과 천제봉(天祭峯)이 연결되는 응암산의 아늑한 경사지에 낙동강 지류인 남강 물이 입수하는 형국, 그리고 정암 쪽에서 백산 방면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 묘소 앞에는 작은 못이 있는데, 어계 선생이 비보풍수로 만든 인공 연못으로 이곳의 형국을 '노서하전지형(老鼠下田地形)' 즉 '늪은 쥐가 내려와 배불리 먹는 형국의 길지'라 하였다. 이 묘지는 수천마리의 쥐가 여항산에서 산세를 타고 내려와 매바위 앞들에서 곡식을 먹는데, 건너편 의령군 정곡면 팽이산의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으려 하나 남강이 가로막아 고양이의 침입을 막는 형국의 지세로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다 (<http://cafe.daum.net/cjn3400/AR3j/39?docid=1DqI2lAR3j39l20080630112644&q=%BE%EE%B0%E8%20%C1%B6%B7>



a: 응암 묘소 배치도



b: 묘소와 방지 그리고 안산

그림 9. 묘소 구역

자료: a: http://local.daum.net/map/index.jsp?l__nil__bestservice=map 필자 제작

의령군 정곡면은 묘소에서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묘소의 좌향에 대응되는 곳은 의령읍으로 그곳이 와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묘소에서 앞을 내다 보면 너른 평야가 펼쳐지는데 좌청룡에 해당되는 능선이 앞으로 나와 있어 앞 쪽의 빈 공간에 직접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묘소의 좌향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 된다. 이곳의 좌청룡과 우백호에 해당되는 능선은 매의 날개죽지를 닮았다고 하는데, 밖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매가 날개짓을 하며 비상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능선의 주봉 이름을 '매바위(鷹岩)'라고 한다. 매나 봉황과 같은 새 형국에서는 날개 밑이 명당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어계의 묘소 위치도 이곳에 점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수와 관련된 설화 중에 '정암 강수가 없어져야 내 자손이 없을 것'이라는 설화가 있다. 정암강 물이 말라서 없어질 지경이 되어야 후손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또 '내 자손

은 마땅히 원복에 세거할 것이나, 만약에 쇠퇴하면 산승칠발안(山僧七鉢案) 오봉상대처(五峯相對處)에 옮겨 살면 다시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였다(家乘). 이 모두 음택풍수의 길지를 잡으면 후손에게 발복하여 누대에 걸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기본 사상이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어계 선생이 풍수지리에 능하였다는 이야기는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의 문화경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하여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로 사료된다.

5) 경관의 원형과 전승

지금까지 어계 선생의 생활공간이었던 '원복재'를 중심으로 그가 은둔의 일상에서 함께 했던 공간이었던 '석정(또는 두꺼비 바위)'과 '구일등고'의 시를 읊기 위해 올랐던 '채미정'의 언덕을 살펴보았으며, 사후의 공간으로 '응암산' 묘소를 점지하였던 것을 보았다. 이 공간은 생전에 어계 선생이 풍수지리의 안목으로 살펴보기도 한 곳이었으며, 단중에 대한 충절과 의리를 직접 표현하고자 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어계의 문화경관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공간은 문화의 전승을 통하여 후대에 동질성을 가진 공간으로 재현될 때 문화경관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당대에 번성하고 그 이후에는 단절되어진다면 문화경관으로서의 생명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어계의 문화경관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조은에 의해 '두꺼비 바위'가 '석정'의 문화경관으로 전승되어졌으며, '고마암'에서는 '백세청풍'의 명문과 시작품으로 전승되어진 것이다. 동일한 공간이 원형의 문화경관과 전승되어진 문화경관으로 중첩되어질 때 영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계의 문화경관이 갖는 영원성이라 하겠다.

5. 시문을 통한 의경미학

동양의 회화관에서는 '의경'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념이 있다. 즉, '시'와 '그림'은 서로 다르지 않고 일체(一體)라는 관념에서 발전되어진 것으로 경물 또는 대상으로서의 자연 경관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먼저 가슴에는 경물에서 발흥되어지는 '정(情)'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그림 또한 이러한 '정'이 형상화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림으로 된다는 이러한 관념은 '시'를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졌다. 그래서 '시중유화(詩中有畫), 화중유시(畫中有詩)'라는 '왕유(王維)'의 명제가 된 것이다. 특히 경물 또는 경물을 표현한 그림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경'의 원리를 적용하여 경관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여 어계 선생이 남긴 시문에서 그가 추구했던 자연관 또는 경관관을 파악해 보고, 그와 관련된 경관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원초 유학에서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는 공자의 '비덕(比德)'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동양의 유가미학은 예술과 도덕이 동일하다는 명제에 그 특징이 있다. 즉, 비덕산수(比德山水)의 개념이다. 산수자연에 도덕 가치와 덕목을 투사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유가미학은 자연물에 대한 개체의 자연감정을 '비덕'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회성이 깃들여 있는 도덕감정으로 전환시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비덕'이란 공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니, 지혜 있는 사람은 물처럼 흘러 움직이고 인자한 사람은 산처럼 안정하며,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인자한 사람은 오래 살게 된다(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20)'는 것처럼 사람의 성정을 자연물인 산과 물에 투사하여 덕으로 비유하는데서 유래한다. 유가의 이러한 미학 원리가 산수화, 원림, 시문 등의 창작활동에 주요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어제 또한 이러한 성리학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논구한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의 성리학적 자연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의경(意境) 요소를 통해서 찾을 수 밖에 없으며, 먼저 <신추(新秋)>에서 이러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 가을

서늘한 산들바람 들녘에 불어오니,
우물가의 오동잎이 떨어지는 가을일세.
이러한 날 이러한 때 무슨 일이 즐거운가,
등잔불 밝혀 놓고 옛 글을 읽으려나.

新秋

金神持節入郊墟。井上梧桐一葉疏。
此日此時何事樂。短檠明處可觀書。

빈 들녘의 풍경 속에 떨어지는 오동잎이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가을의 모습을 떨어지는 오동잎에서 발견하는 풍경을 읊은 시 한수다. 가을이 오면 자신의 즐거움을 은둔한 처소에서 옛글을 읽는데서 찾으려 한다는 다분히 자신의 신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동나무는 봉황을 기다리는 뜻에서 심는 상서로운 나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가을의 전령으로서 바스락거리는 모습, 떨어지는 모습에서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단순한 풍물시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러한 풍물조차도 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시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대상이기 보다는 그 자연의 변화 속에서 선비로서, 유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해 주는 '비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관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수신'하는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어제 선생을 상징하는 단어는 '은둔'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의 시 작품 속에는 이러한 은둔에 대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여럿 있다. 그 중에서도 직설적으로 자신의 은둔사실을 밝히는 작품에는 성리학의 수기(修己)와 독선(獨善)으로서의 은둔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함안향교의 벽위에 쓰다(題咸安鄉校壁上)>를 들 수 있다.

함안향교의 벽위에 쓰다.

나는 본시 어계에서 은둔한 사람이라,
반궁에 왕래한 지 몇 해나 되었는고.
이제 와서 선비교육 기꺼이 바라보니,
여파를 입고 과도불인 함이 부끄럽네.

題咸安鄉校壁上

我是漁溪隱遯人。幾年來往洋宮瀕。
如今樂見菁莪教。願浴餘波愧 缺仁。

이 시에서 '나는 본시 어계에서 은둔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지난 날 '반궁' 즉 성균관에서 학문에 정진하던 모습과 지금의 위치를 비교해 볼 때 선비로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유학자로서 비록 산림에 묻혀 있지만 단순한 도피로서의 은둔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문을 닦고자 하는 유학자의 모습 즉 유가의 은둔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가의 은둔관이란 단순히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수신제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도가의 은둔관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은둔관은 그의 다른 작품 <망선정에서 판상운을 차운함(望仙亭 次板上韻)>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망선정에서 판상운을 차운함

맑은 물에 발을 씻고 잔디위에 앉았으니
고운 매화 야윈 대에 정신이 상쾌하다.
문은 천지간에 마음 이는 밝은 달을 맞이했고
두루미는 산수간에 흥겨운 봄을 만나 호방했다.
시시비비 새소리는 세속을 싫어했고
나뭇끼는 낙화울은 부끄러운 사람갈네.(이하 결)
望仙亭。次板上韻。亭在沃川
濯足清流坐草茵。寒梅瘦竹倍精神。
門迎天地知心月。樽放湖山得意春。
啼鳥是非嫌近俗。落花飄覆愧猶人。
缺

망선정은 충청북도 옥천에 소재하는 정자라고 하는데, 이 작품을 두고서 일부에서는 어계의 망선대라고 설명하고 있다(http://blog.daum.net/leejh1938/18343362). 그러나 잘못 붙인 명칭으로 생각된다. 누와 대는 엄연히 구분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시의 첫 연에 나오는 '맑은 물에 발을 씻고'라는 행위는 '탁족(濯足)'하고자 원했던 '굴원'의 '어부사'에 나오는 어부의 행

동이다. 그리고 '고운 매화 야윈 대'에서 매화와 대나무는 선비의 절개와 충절을 상징하는 경물이 된다. 마지막 연에서 '시시비비 새소리는 세속을 싫어했고 나부끼는 낙화울은 부끄러운 사람' 같다는 표현에서 현실의 정치, 현실의 불의함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자연 속에 합일되고 동화되는 은둔자의 모습을 갈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시 그 경지는 '야'의 경지가 된다. '야'는 '바른 정치'를 의미한다. 세속과 차별되는 '이상향'의 세계인 것이다. 이런 '바른 정치'를 바라는 어계는 <구일등고(九日登高)> 시에서는 은둔자의 임금에 대한 충절을 좀 더 직설적이고도 깊이 토로하고 있다.

구일등고

구월달의 구일날인 중구날을 당하여서,
 좋은 시절 읍고파서 높은 산에 올랐도다.
 흰구름 떠나가고 기러기 때 남쪽으로 날았으며,
 난초는 아름답고 국화꽃 향기롭네.
 산은 밝고 물 맑은데 연기 빛 참담하고,
 높은 바람 맑은 햇빛 기운이 처량하다.
 갈대꽃은 눈을 뽀뽀 강가에 피어 있고,
 단풍잎 비단처럼 피의 양지 장식했네.
 두목은 호방하여 취미산에 올랐으며,
 도연명은 뜻이 높아 백의량이 되었다도.
 천년전의 좋은 풍류 어계와 같았으며,
 오늘의 호기로운 추상같이 늙름하다.
 머리 돌려 바라보니 강산이 저무는데,
 넓은 땅 높은 하늘 생각이 아득하네.
 복희 헉헉 멀어져서 슬픔이 한없으며,
 요순시절 못 만나니 마음이 괴로워라.
 시를 쓴 붓 밑에는 천지가 넓었으며,
 흠뻑 취한 술잔 앞에 세월이 길었도다.
 슬프다 늙은 몸이 늦게 남아 괴롭구나,
 미인을 생각하여 잊혀지지 아니하네.

九日登高

九月九日是重九。欲酬佳節登高岡。
 白雲飛兮雁南賓。蘭有秀兮菊有芳。
 山明水碧煙慘慘。風高日晶氣淒涼。
 荻花吐雪江之滸。楓粧紅錦山之陽。
 杜牧既上翠微岫。陶潛長望白衣郎。
 千載風流如昨日。至今豪氣凜秋霜。
 回頭舉目江山暮。地闊天高思渺茫。
 羲軒遠矣悲何極。華髮不見心自傷。
 沈吟筆下乾坤闊。爛醉樽前日月長。
 嗟哉潦倒生苦晚。懷佳人兮不能忘。

비록 자연에 묻혀서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항

상 임금과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 연에서부터 그러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구월달의 구일날인 중구날을 당하여서, 좋은 시절 읍고파서 높은 산에 올랐도다'라고 묘사한다. 구월구일은 등고(登高)의 날이다. 두보(杜甫)의 시처럼 중국에서는 구월구일 중앙절에 고향을 떠난 자들이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향수를 달래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향땅을 바라보는 날이다. 마찬가지로 어계 또한 이 날을 맞이하여 채미정 옆에 있는 청풍대에 올라 백이산과 숙계봉을 바라보며 단종이 재임하던 시절이 그리워 이 시를 읍었을 것이다.

2연에서는 백이산과 그 배경이 되는 하늘의 물경(物景)을 그렸다. '하늘가에는 흰구름만 떠 있고 기러기는 따뜻한 남쪽나라로 향하고' 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니 '난초와 국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난초와 국화는 사군자 중의 하나로 예로부터 선비의 아름다운 덕목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주변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3연에서는 '산은 밝고 물 맑은데 연기 빛 참담하고, 높은 바람 맑은 햇빛 기운이 처량하다. 시적인 공간은 백이산이 있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여기서 보는 자연은 이전의 산이요 물인데 지금은 참담하고 처량하기만 하다. 시인의 마음 속 감정이 산과 물에 비추어질 때 맑고 맑은 대상이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계속해서 4연에서 시인은 자연의 모습을 바라본다. '갈대꽃은 눈을 뽀뽀 강가에 피어 있고, 단풍잎 비단처럼 피의 양지 장식'하고 있다. 다시 산은 단풍이 만개하고 물은 갈대로 가득 차 있다. 갈대꽃이 눈으로 변하고 단풍잎이 비단으로 변하는 그림의 경지가 넘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순간 5연에서 두목(杜牧)과 도연명(陶淵明)의 고사를 통하여 그들의 기상이 되살아난다. '두목은 호방하여 취미산에 올랐으며, 도연명은 뜻이 높아 백의량이 되었다'고 한다. 두목과 도연명은 모두 중앙절날 산에 오르고, 국화주를 구해서 마시는 고사의 주인공들이다.

그 기상은 바로 6연에서 표현되는데 '천년전의 좋은 풍류 어계와 같았으며, 오늘의 호기로운 추상같이 늙름'하다. 천년전의 좋은 풍류란 요순시절의 의로운 때를 말함이고, 오늘의 호기로운 움이란 조려의 어계로의 은둔생활을 말한다. 은둔에 있어서 추호의 후회도 없음을 '추상(秋霜)'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 속에는 답답함이 어려 있다.

7연에서 이러한 의경은 '머리돌려 바라보니 강산이 저무는데, 넓은 땅 높은 하늘 생각이 아득하네'로 나타난다. 강산과 하늘의 경물이 서로 대비되어 자신의 답답한 심정이 '저물어가는 노을'과 '아득한 하늘'로 짐작되어져 나타난다.

심정이 답답한 이유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8연에서 나타난다. '복희 헉헉 멀어져서 슬픔이 한없으며, 요순시절 못 만나니

표 1. 조려 시의 의경미학 분석

시 작품	경물 대상	표현된 주제
신주	들녘, 우물가, 오동잎, 등잔불	자연의 변화 속에서 수기독선하는 선비의 자연관을 표출
체함안향교벽상	어계, 반궁	유학자의 은둔관으로 선비교육의 중요성 강조
망선정 차판상운	물, 매화, 대, 새소리	은둔자의 절개와 충절
구일등고	산, 흰구름, 기러기, 난초, 국화, 물, 갈대, 단풍잎, 붓, 술잔, 가인	은둔의 이유와 단중에 대한 충절

마음이 괴로워'지는 심정이 된다. 복희(伏羲), 현륜(軒轅)과 요순(堯舜)은 모두 중국의 삼황(三皇)과 오제(五帝)를 대표하는 제왕을 말하며, 태평성대를 이룬 시대를 상징한다. 그런 시대가 다시 멀어져서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심정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9연에서 이러한 심정을 다시 한번 경물에 투사하니 '시를 쓴 붓 밑에는 천지가 넓었으며, 흠뻑 취한 술잔 앞엔 세월이 길게만 느껴질 뿐이다. 건곤(乾坤)과 일월(日月)은 무한한 공간을 나타내는 경물이 된다. 경계를 지을 수 없는 하늘과 그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은 모두 붓으로 다할 수 없는 절대공간이요, 절대시간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 조려의 심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자신의 은둔에 대한 절대명제를 '슬프다 늙은 몸이 늦게 남아 괴롭구나, 미인을 생각하여 잊혀지지 아니하다'고 표현한다. 이제 몸이 늙어서 더 이상 기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중에 대한 그리움과 충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자신의 몸과 가인(佳人)에 비추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계는 '구일등고'를 통해 은둔의 이유와 단중에 대한 충절을 절대명제로 표현하고 있다.

어계의 시문 가운데서 함안 원북으로 은둔한 뒤의 시작품을 뽑아 그 중에서도 다시 공간과 경물의 묘사가 풍부하게 표현된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을 선택하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경미학을 분석해 본 결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어계의 은둔공간은 '어계'라는 공간적 틀 속에서 '유가적 은둔', '도량있는 은둔', '충절의 은둔'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의 시에 나타난 경물을 보면 식물과 자연 요소 즉 산, 구름, 계류 등이 많이 등장한다. 그것은 은둔에 따른 자연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물이 된다. 이러한 경물을 통하여 그가 '비덕'하고자 했던 관념은 자연관이요 은둔관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은둔관은 노장의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遁世(遁世)적 은둔'과는 다른,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면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여유와 아량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IV.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조선 전기 생육신 중의 한 분이

셨던 어계 조려 선생과 조선 전기 사림의 은둔문화 경관의 특징을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어계 조려는 조선시대 세종 2년(1420년)에서 성종 20년(1489년)까지 살았던 생육신 중의 한 분으로 세조의 왕위찬탈 소식에 성균관에서 과거준비를 하던 도중, 고향 함안으로 낙향하여 원북리에 터를 정하고 은둔의 세월로 단중에 대한 정절을 지켰던 절의 높은 선비요 학자였다. 그의 출처관은 여말선초에 성리학으로 훈련된 길재 등의 절의파와 성균관에서 교육할 때 교우를 맺었던 동학 류계분, 배중후, 강응정 그리고 생육신과의 교제에서 은둔에 대한 출처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

어계에게 있어서 은둔문화가 갖는 의미는 그의 호 '어계'를 비롯하여 시작품 '함안향교의 벽상에 쓰다'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원북재 앞 계울에 있는 바위를 낚시터로 삼거나 채미정 옆의 언덕을 오르거나 고마암 앞을 낚시터로 삼으면서 은둔의 생을 살았다는 점에서 은둔문화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은둔문화에 따른 행동양식을 경관과 특징을 지어 보면 첫째, 행동의 집중화 현상, 둘째, 절대 은둔의 기행 현상, 셋째, 풍수지리와 관련한 산천유람 활동, 넷째, 은둔과 같은 고집스런 행동과 연계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은둔행동이 구체화되는 공간을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영역은 원북재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어계 생존 당시 활동하였던 주택, 계류와 석정 등이 있으며, 석정은 17세기 조은 한몽삼과의 경관전승 관계로 연결된다. 서산서원과 채미정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영역은 어계 사후 후손과 유림들의 상소에 의해 창건된 서산서원과 함께 세워진 누정이다. 이곳에는 청풍대라는 언덕이 있는데, 어계의 시 '구일등고'의 무대가 된 곳으로 보여지며, '백세청풍'과 같은 풍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은둔문화의 경관 전승'이라 하겠다. 고마암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영역 또한 '은둔문화의 경관 전승'이라 하겠다. 이곳은 특히 '백이숙제 고마이간' 고사에 따라서 명명되어진 곳으로 앞의 채미정과 함께 어계의 '백세청풍'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었다. 어계는 또한 풍수지리에 능하였으며, 가거지의 선정, 묘소의 선정 등에서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둔문화가 갖는 의경미학에 대하여 그의 시작품을 중심으로 경물과 표현된 주제를 분석한 결과, 조려의 은둔공간은 '어계'라는 공간적 틀 속에서 '유가적 은둔', '아취있는 은둔', '충절의 은둔' 등으로 주제 의식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식물과 자연요소와 인

공요소로 이루어졌다는 의경미학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15세기 조선 초기 단종의 폐위사건에 따라서 사립에서도 출처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생겼는데, 그것이 사육신과 생육신의 등장이라 하겠다. 어계 선생은 생육신의 한 분으로 일생을 '어계'에 은둔하여 세상과 결별했던 은둔처사였다. 선생의 은둔지였던 '어계'와 그가 남긴 시문을 통하여 은둔문화의 경관에 대한 일단의 특징을 파악하고 후대에 전승되어지는 통로로서의 경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16세기 이후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은둔자와 은둔문화가 갖는 경관 특징을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조선시대 사립의 은둔문화 경관의 특징과 변모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어계 선생이 남긴 시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빈약한 자료에 근거하여 그의 은둔관, 자연관과 경관관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풍수지리에 능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한 경관 해석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승공간인 서산서원의 원형공간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떠오른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주 1. 두문동칠십이현은 조선의 개창에 반대해 두문동에서 끝까지 고령에 충성을 바치며, 지조를 지킨 72명의 고령 유신을 이르는 말. 72명의 이름은 현재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신규, 신흠, 신우, 조의생, 임선미, 이경, 맹호성, 고천상, 서중보, 성사제, 박문수, 민안부, 금충한, 이의 등의 이름만이 밝혀져 있다.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던 옛 지명으로, 칠십이현이 모두 이곳에 들어와 마을의 동·서쪽에 모두 문을 세우고는 빗장을 걸어 놓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후세에 절의의 표상으로 숭앙되었고, 정조 7년(1783년)에는 왕명으로 개성의 성균관에 표절사(表節祠)를 세워 배향하게 하였다.
- 주 2. 一別天涯會面遲 春風秋月幾相思 水流葉落星霜變 雁獨嗷嗷雲外飛
- 주 3. 寄來詩韻轉清高 萬斛羈愁一見消 暫刻破山時已近 莫停清水飲其刀
- 주 4. 自口相爲參與商 思君一日九回腸 法輪橋下溪邊事 千里長安尚未忘
- 주 5. 方其携手登臨 藉草鼎坐 西山之逸詩可和 中流之楚辭可詠也(觀瀾遺稿, 雄嶽山題名錄敘, 陸萬中撰)
- 주 6. 天順戊寅 我世祖四年 春 自上特命鶴寺 招魯山魂 設飯享之 建招魂閣 使儒釋盡守護 翼年春 梅月堂金時習, 提學曹尙治, 參判李蕃, 正郎鄭之產, 同知宋侃, 進士趙旅, 校理成燾 與僧明禪, 月峯, 雲波 精備山果川魚等物 各自西南北來祭上王 修補招魂閣(漁溪先生續集 卷之三 附錄 東鶴寺招魂閣事蹟)
- 주 7. 柏生兩石間 歲久愈蔥籠 嚴勁守其節 凜冽凌霜風(觀瀾遺稿, 雄嶽山題名錄敘, 陸萬中撰)
- 주 8. 此後即謝絕人間事 廢科業 杜門不出 自號曰漁溪處士 隱然有濯纓足之意而寓之焉耳(雲整先生文集卷之十 漁溪墓碣銘)
- 주 9. 常靜處一室 對黃卷 沈潛於聖賢言語 意趣有得於心 便欣然樂而忘寢食(漁溪先生集 卷之二 附錄 墓碣銘 李薇撰)
- 주 10. 自歲乙亥 遂廢科業 杜門不出 自號漁溪處士 蓋以漁釣終其身 不求聞於世也(漁溪先生集 卷之二 附錄 墓碣銘 李薇撰)
- 주 11. 公善風水 卜地於郡西院北洞 有水石之勝 始也絕無人居(漁溪先生集 卷之二 附錄 傳 滄浪子 成文澤撰)
- 주 12. 公自卜藏於鼎巖江上 距伯夷山若而里 嘗曰 江水盡 子孫亡(漁溪先生集 卷之二 附錄 神道碑銘 李緯撰)

- 주 13. 망천정의 위치에 대하여는 '어계집'에서는 옥천에 소재한다고 하였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는 망천정의 소재지가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계집'을 따랐다.
- 주 14. 先生色養承順 左右無違 凡子職之所當爲者 無不盡其誠 甘旨之奉 惟其所嗜好 而雖貧必豐足焉 常侍在側 未嘗須臾離(漁溪先生集 卷之二 附錄 墓碣銘 李薇撰)
- 주 15. 客至 相對啖蔬糲 所與言 非桑麻 即野談 簞食屢空 怡然樂 而剛毅之氣 和泰之容 粹然見於顏面(漁溪先生集 卷之二 附錄 墓碣銘 李薇撰)
- 주 16. '샘과 돌이 고향에 들었다'라는 뜻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깊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당서(唐書) 제196권 은일전(隱逸傳) 전유암전(田遊巖傳)에 나온다. 전유암은 당나라 고종 때 은사로 명망이 높았다. 그는 기산에 은거하여 허유가 거거하던 곳 근처에 살면서 스스로 유동림(由東隣)이라고 불렀다. 조정에서 여러 번 등용하려고 불렀으나 그는 나아가지 않았다. 나중에 고종이 승산에 행차하였다가 그가 사는 곳에 들러 '선생께서는 편안하신가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전유암은 '신은 샘과 돌이 고향에 걸린 것처럼, 자연을 즐기는 것이 고질병처럼 되었습니다(臣所謂泉石膏肓, 煙霞痼疾者)'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유래하여 천석고황은 뒷구절의 연하고질과 더불어 자연을 매우 사랑하는 성벽이 고칠 수 없는 병처럼 굳어졌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 주 17. 수석침류(漱石沈流) 또는 침류수석(沈流漱石)은 진(晉)나라 초엽 손초(孫楚)의 고사에서 나온 말로 그가 젊었을 때에 노장사상에 심취하여 속세를 떠나 산림 속에 숨으려고 친구 왕제(王濟)에게 심사를 털어놓으면서 한 말이다. 즉, 그는 '돌을 베개 삼고 시냇물에 양치하는 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뜻의 침석수류(沈石漱流)를 잘못하여 침류수석 즉 '돌에 양치하고 시냇물을 베개 삼는다.'는 말로 하자 친구가 어떻게 시냇물로 베개 삼고 돌로 양치할 수 있던 말인가 하며 웃었다. 그러자 손초는 시냇물을 베개 삼는다는 것은 옛날 은자 허유와 같이 쓸데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으려 하는 것이며, 돌로 양치한다는 것은 이를 닦으려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이후 자기의 실언을 만회하려고 말을 억지로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주 18. 경운조월이란 경운조월(耕云釣月) 심고은사(心孤隱士) 즉 깊은 곳에 숨어 사는 은자의 생활을 묘사한 표현으로 '달이 비추는 밤에 홀로 물가에 낚시를 드리우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물렸다가 흩어지고, 또한 떠 있는 달은 등글었다가 다시 이리저리기도 하는 그러한 한가로운 아인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 주 18. 先生雅好山水 結數椽小亭於巴陵郡西 取其溪畔有巖 扁以石亭 其銘曰 泉石膏肓 煙霞痼疾 漱石沈流 耕雲釣月 後人愛其筆 刻而傳之 又於同郡之遠巖爲絕勝 故又卜築其上 自號遠巖釣隱(釣隱先生集 卷之四 附錄 大笑軒行狀)
- 주 20. 既又直講堂東垣之外 有方塘巖石之勝 則相與謀構一亭 曰采薇 漁溪先生 嘗有九日登高詩 君子以西山之歌比之 故亦借之名 以寓其實也(漁溪先生續集 卷之三 附錄 采薇亭記)

인용문헌

1. 강영환(1999) 한국의 건축 문화재 7 경남편. 서울: 기문당.
2. 김성언(2000) 은둔의 미학: 어계 조려의 시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14: 5-26.
3. 김수진, 김태수, 심우경(2007) 서계 박세당의 석천동 경영과 이상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4): 1-12.
4. 김용현(2005) 조선시대의 도화적 은사 문화: 퇴·율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9: 139-161.
5. 김익재(2005) 조은 한몽삼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남상호(2001) 관란 원호의 사상과 선비정신. 강원문화연구 20: 1-18.
7. 대동지지(大東地誌).

8. 변성규(1999) 은일개념의 형성에 관하여. 중국문학 32(1): 81-92.
9. 이행(李符)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0. 심경호(2009) 서계 박세당의 수락산 은거와 학문 기획. 어문연구 37(2): 367-395.
11. 양병이, 박은영, 박휘(2003)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길도, 소쇄원, 남간정사,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21(1): 9-20.
12. 조려(1992) 어계선생집. 함안: 서산서원.
13. 조려(1992), 어계선생속집. 함안: 서산서원.
14. 이경수(2007) 삼연 김창흡의 설악산 은둔과 한시표현. 강원문화연구 26: 19-39.
15. 이은아(2003) 어초문답도 연구: 간송미술관 소장 <어초문답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신성(1999) 생육신 조려 관련 시문과 유적지의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13: 107-138.
17. 이신성(2000) 생육신 조려 관련 <호배도강전설>의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14: 107-131.
18. 이혁중, 최기수(2009) 원림 속 동천의 경관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103-115.
19. 정영철(2007) 시조를 통해 본 전통주거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 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1): 281-284.
20. 曹麗环(1998) 漁父·園林及 其隱逸的象徴. 學術交流 6: 99-101.
21. 운학집(雲壑集).
22. 지두환(1989) 어계 조려(1420~1480)의 생애와 영향. 한국문화연구 2: 3-16.
23. 진상원(1993)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생애와 사상: 주자성리학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최원석(2000)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http://blog.daum.net/leejh1938/18343362>
26. <http://cafe.daum.net/cjn3400/AR3j/39?docid=1DqI2IAR3jI39I20080630112644&q=%BE%EE%B0%E8%20%C1%B6%B7%C1%C0%C7%20%B9%A6%BC%D2>
27. <http://cafe.daum.net/cjn3400/>
28. <http://cafe.daum.net/mokpoczerypiano/>
29.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
30. http://local.daum.net/map/index.jsp?l_____nil_____bestservice=map
31.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30444&ty=2>
32.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20>

원 고 접 수 일: 2010년 2월 22일
 심 사 일: 2010년 4월 15일(1차)
 2011년 3월 14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1년 3월 22일
 4 인 의 명 심 사 필